

장흥 찾은 관광객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105만명...전년비 40% 감소
인근 해남군 21% 증가와 대조
문화·관광 예산 증액 등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장흥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장흥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 2019년 175만명에서 지난해는 무려 40%(70만명)가 줄어든 105만명에 불과했다.
인근 해남군이 2019년에 119만명에서 지난해

는 144만명으로 21%(25만명)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관광객 감소는 코로나19가 절대적 이유가 될수 없다"며 "문화·관광분야 예산투자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관광인구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의 문화예술·관광분야 예산이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적은 것도 관광객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흥군의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102억원(전체 예산 대비 0.9%)인데 강진군은 192억원(2.6%), 보성군은 149억원(1.6%), 해남군은

269억원(2%)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마인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흥군은 또 스포츠메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각종 도 단위 이상 스포츠대회 유치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스포츠대회 유치현황을 보면 장흥군은 12개 인데 반해 강진은 32개, 해남군은 41개 대회를 유치, 스포츠메카로서 자존심을 구긴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단순 전 시행정 예산편성 보다는 문화·예술과 관광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로 관광 유동인구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yongho@kwangju.co.kr

맛과 향 일품 장성 겨울딸기 '설향' 본격 출하

출하 시기 평년보다 빨라

장성 겨울딸기가 출하를 시작했다.
장성 농민이 기른 딸기는 가을철 고온 날씨로 인해 출하 시기가 평년보다 앞당겨졌다.
설향 품종이 중심인 장성 딸기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단단하기로 정평이 나왔다.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 리코펜 등의 함량이 높아 겨울철 보약으로 불린다.
장성에서는 진원면, 황동면, 남면 등에서 210농가가 85ha 규모로 딸기를 재배한다.
장성군은 고품질 딸기 생산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꽃눈분화 검사, 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제철 맛은 장성 딸기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품질 딸기를 꾸준히 재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사유지 침범...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부실 공사 원성

설계누락...진동방지 시설 없어
"타일 쏟아지고 벽 갈라진다"
민원 제기에도 배짱 공사 강행



담장을 허물고 사유지를 침범해 빌딩 벽까지 터파기 공사한 모습.

나주시가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타일이 쏟아지고 벽이 심하게 갈라진다는 민원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시정 앞에 '나주시 가족센터(주거지 주차장)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나주시 송월동 1099-2번지에 건축면적 5945㎡에 예산 102억2600만원을 들여 가족센터 1774㎡(지상 2층), 주거지주차장 4171㎡(지상 2층)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설계도에 일부 흠마이 설치 누락하고, 공사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방지 시설 없이 진행되고 있어 출속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사과정에서 발주처인 나주시와 시공사는 건축주에 허락도 없이 건물 담장을 허물고 건물 벽까지 폭 50cm 사유지에 땅을 잡식해 터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특히 건물주가 빌딩 내부 타일이 쏟아져 내리고 벽이 심하게 갈라져 건물 붕괴 우려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사도 강행하고 있어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더욱이 빌딩에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 5층에 사람이 거주하는데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단순히 육안조사를 의뢰한 후 공사를 계속해 안전 불감증 논란도 일고 있다.
삼성빌딩 건물주 조승리씨는 "공사와 관련해 나주시나 시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땅 주인을 만나지도 않고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유로 허락도 없이 사유지를 파헤쳐도 되는가"며 항의했다.
조씨는 "지난주 시정에 '공사중지요청' 민원 접

수와 시장을 면담하고 강인규 시장이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지만 배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씨 모친 정진희씨는 "화장실에 타일이 쏟아지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삐걱거리는 소리에 건물이 무너질까 겁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와 시공사 측은 "건물주를 만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건물주 모친과의 면담에서 담장을 허물고 공사를 하기로 협의했다"며 "민원이 제기돼 파손된 건물 내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H 안전연구원이 지난 4일 실시한 육안조사 결과에는 '조적벽체 균열과 타일탈락 등은 대부분 건물 노후화로 추정되며, 공사의 터파기로 발생한 가능성이 거의 없음'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H 안전연구원은 "현재 터파기 조건에서 장기간 경과될 경우 미세한 영향은 발생할 수 있어 구조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언해 터파기 공사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암시하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화순군, 국비예산 1200억원 시대 열었다

백신·바이오 등 대거 반영
1260억...올해보다 364억 늘어

화순군이 역대 최대 국비 확보로 사상 처음 '국비예산 1200억원 시대'를 열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현안 관련 국비예산은 1260억원대로 올해 896억원보다 무려 40.6%(364억) 늘었다.
특히 정부의 K-글로벌 허브화 전략 계획과 연계해 백신·바이오 관련 사업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96억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14억원),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28억원),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등 총 13개 사업 519억원이 확보됐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화순 트릴리지 조성(10억원), 한천 자연휴양림 예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10억원) 등 6개 사업 32억원이 반영됐다.
제난재해 정비 사업과 농촌 생활기반 개선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화순군은 연초부터 정부 정책 동향과 예산 편성 방향을 분석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1억원 증액되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청소년복지센터 '찾아가는 거리 상담'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달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찾아가는 거리 상담 '톡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거리 상담' '톡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을 앓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돕기 위해 직접 거리나 학교 등으로 찾아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외에도 상담복지센터 홍보와 캡슐 뽕기 놀이, 우울, 불안, 스마트폰 중독 등 자가 체크 검사,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손소독제 배포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N꿈드림'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